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을 전향적으로 서두르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도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국내선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광주공항 계류장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무안공항 통합협상 본격화 되나

뉴스초점

광주공항 이전 실마리

광주공항과 관련된 광주시의 진일보된 자세에 전남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해결 기미가 없었던 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시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 공항 이전후보지 추천 시기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윤 시장의 발언이 선언에만 그칠 경우 다시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윤 시장의 '민간공항 이전 발언'은 상당한 사전준비를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전남도와의 상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부지 8.3km²(251만평)를 2025년까지 미래세대가 거주할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고 싶

윤장현 시장 '민간공항 이전' 전향적 발언에 전남도 긍정적 반응

이전 후보지 단재장 모두 권한대행 ... 내년 선거 이전 어려울수도

다는 의지를 과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무안공항의 일본·중국 노선을 직접 세일즈할 정도로 그의 자세는 적극적이었다. 10년 이상 해묵은 현안의 해결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윤 시장으로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공항 이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전남도였다. 전남도 내에서는 그동안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 공항 이전만 서두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광주시가 지난 3월과 7월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해남·영암·신안 등 4개 지역(6곳)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를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최근 영암·신안에서 가진 설명회에도 전남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방해는 없었지만 뒷집을 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전남도의 내부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지난 8일 이후다. 이날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비공식 일정으로 전남도에 내려가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그동안 전남도가 가졌던 '오해'를 불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 군 공항이 이전하기 전이라도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시

장의 12일 발언은 8일 전남도와의 협의가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윤 시장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결정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전남도와 본격적인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2곳을 연내에 국방부에 추천하고 싶지만, 유력후보지인 무안과 해남의 단재장이 공식 인데다 전남도마저 지사가 아닌 권한대행 체재라는 점에서 이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아직 무안, 해남에서 주민설명회도 갖지 못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 또한 아직 남아있는 과제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서둘러 이전 후보지 2곳의 명단을 국방부에 남길 경우 다시 전남도와의 마찰이 재연될 수도 있다. 또 윤 시장과 광주시의 자세 변화가 단순히 말로 끝날 경우 전남도의 실망은 더 커져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기두 광주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되도록 연말 안에 이전 후보지 2곳을 국방부에 추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아

직 무안, 해남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하는 등 변수가 있고, 전남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광주시는 이전후보지와 주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윤 시장이 중요한 방향 전환의 계기를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상호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후보지의 입장이 중요하며 민간공항 이전을 선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명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설 동신대 교수(전남발전연구원장)는 "현실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으로선 한계가 있을 것이며, 전남도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서두르지 말고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와 국방부는 2022년까지 5조7000억원을 들여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개발 등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지에 대해서는 4500억원 이상이 지원되며, 군 공항 바로 옆에 조성되는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 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 금호호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

전남도, 농가 전파 차단·방재 총력

고병원성 여부 오늘 판명

철새도래지인 해남 금호호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순천만 철새 분변과 영암 종오리 농가에 이어 전남에서만 세번째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1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철새 분변 오염원이 닭·오리 사육 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남 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긴급 방역 조치했다. 또 해당지역 가금류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지역의 가금사육 농가(38호, 약 52만8000마리)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1차로 검사를 마친 대규모 농장 7농가 33만6000마리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철새 분변 등 오염원이 농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 농가 등을 매일 소독하고 14개 시·군에서는 드론 17대를 띄워 축사 지붕과 주변 등 방재취약지역을 매주 1회 집중 소독하고 있다. 순천만·금호호 등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은 지난달 21일부터 폐쇄했다.

또 가금 농가에 출입하는 왕겨 운반차량 121대를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AI 위험지역 내 소규모 사육농가 147호 1767마리를 수매·도태시켰다.

농식품부도 AI 대책회의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축사 지붕 소독, 소하천 만곡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했다.

한편, 옮겨울 들어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와 영암 종오리 농가 2곳이며,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순천만과 제주 구좌읍 하도리(2건) 등 총 3건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금호호 외에 충남 천안 병천천, 강원 양양 남대천 등 2곳의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해 고병원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파 '주춤'... 밤엔 추워요

지난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18일 잠시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기압골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등 기온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8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고 17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18일 밤부터는 찬 기온이 북서쪽에서 유입되면서 20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기온은 오는 27일까지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최고기온 영상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1일과 23일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뒤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면서 "18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인 쌀쌀한 겨울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2017 국내·국제 10대 뉴스 ▶18면



한국, 일본 꺾고 E-1컵 우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Merry merry Christmas
ACC와 함께

행사 Dream Night in ACC 12.22(금) ~ 12.24(일)
M카운트다운 특별 생방송 12.22(금)

전시 토마스 사라세노의 <행성 그 사이의 우리> ~2018.3.25(일)
2017 ACC창작공간네트워크 전시-아시아의 도시들 12.22(금)~12.31(일)
새로운 유라시아 세 번째 장 나의, 당신의, 우리의 것 : 경계와 영토, 그리고 연합 ~2018.1.14(일)
달의 이면 ~2018.2.24(토)
송 오브 펠트 Song of Felt ~2018.2.24(토)
아시아의 타투 ~2018.6.24(일)

교육 ACC TEEN 청소년 심화 진로 체험 작품 전시 12.22(금)~12.31(일)
ACC 시인메이커스 빛을 엮는 기술 전시 12.2(토)~12.25(월)

어린이 (체험전시) 시아의 여행 ~2018.4.15(일)
(크리스마스공연) Song From the snow
제니스+신나는 섬 12.22(금) / 메이트리+임선호퀵 12.23(토)
(도서관) 놀러와, 이야기숲으로 12.24(일) ~ 25(월)
※ 어린이체험관, 유아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상시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Asia Culture Center,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Korea) 문의 1899-5566 (09:00~18:00) 홈페이지 www.acc.go.kr